

셀트리온 ‘렘시마SC’ 獨서 첫 처방

10조 유럽시장 공략 신호탄

독일 TNF-α 치료제시장 약2.3조
의료진 대상 맞춤형 마케팅 주력
내달 獨 최대규모 학회서 심포지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인플릭시맙과 하주사제형 프리임시밀러 ‘렘시마SC’가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처방이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렘시마SC’가 순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마케팅 역량으로 유럽 처방에 성공한 만큼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 TNF-α 치료제 시장 선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렘시마SC’ 처방 확대 목적으로 론칭에 앞선 지난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렘시마SC’의 2월 독일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독일 베를린 의학대학 류마티스병원 리케 알텐(Rieke



렘시마SC /셀트리온헬스케어

Alten) 교수와 벨기에 루벤 대학의 웨스트호브(Westhovens) 교수가 참석해 ‘렘시마SC’ 임상 결과와 처방 잠재력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부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셀트리온그룹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판매 현황 및 ‘렘시마SC’ 마케팅 전략, 유럽 시장 직판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독일은 TNF-α 치료제 시장이 약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 시장이다.

독일은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러한 독일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 대상의 맞춤형 ‘렘시마SC’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 3월 개최 예정인 독일 최대 규모의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의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렘시마SC’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기 부회장은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 렘시마SC를 순차적으로 출시해 10조 원 규모의 유럽 TNF-α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렘시마SC’는 주요 시장에서 직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우수한 현지 인력들을 올해 말까지 글로벌 전역에서 300여명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메디톡신’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적응증 획득

메디톡스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중 최초로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메디톡신은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침착기형 ▲눈꺼풀 경련 ▲미간 주름 ▲눈가주름 등 총 6개의 적응증을 확보해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게 됐다.

흔히 사경증이라 불리는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메디톡신 제품 사진 /메디톡스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 걷기, 운전하기 등 일상 생활에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드러나 심리적 위축이 상당하다.

메디톡신은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메디톡신을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민지 기자

씨젠,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공급

자동화로 하루 1000명 동시검사

3개 목표유전자 검출토록 설계
대용량 검사 효율성 크게 높여
검사시간 단축, 결과 자동 판독

씨젠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전세계 공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Allplex 2019-nCoV Assay)은 지난 7일 유럽 인증(CE-IVD)을 받은 데 이어 12일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 제품은 코로나19 유전자에 대한 다수의 국제 프로토콜(검출대상 목표유전자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3개의 목표유전자(E gene-RdRP gene and N gene) 모두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나다. 국가마다 코로나19를 검출하는 유전자



코로나19 진단시약 /씨젠

프로토콜이 조금씩 차이를 보여 이 중 일부만 반영할 경우, RNA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가 생긴다는 특성 때문에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 현재 목표유전자의 양성유무와 목표유전자 타입을 두 개의 튜브로 각각 검사하는 것에서 한 개의 튜브로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용량 검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제품은 씨젠의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검사기관에 따라 하루 1000명 이상 동시검사가 가능하다. 또 검사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어 검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출시된 씨젠의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나 폐렴의 동시검사가 가능해 유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원인 규명에 따른 처방이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일일 생산가능량은 5만건 검사 규모다. 씨젠은 필요에 따라 2배까지 증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 및 해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편리함·영양 살린 ‘집으로ON 순살생선’

대상 청정원 고등어, 삼치구이 선배

대상 청정원 온라인 전용 브랜드 집으로ON은 ‘집으로ON 어린이 순살생선’ 2종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번거로운 조리과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산물 HM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HMR 시장 규모는 2016년 220억 원에서 2018년 339억 원으로 2년간 약 54% 성장했다.

청정원 집으로ON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구이’와 ‘삼치구이’로 구성된 어린이 순살생선 2종을 선보



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제품은 100% 수작업으로 가시를 제거해 생선을 발라먹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집으로ON 어린이 순살생선’ 2종은 레몬즙을 사용해 잡내를 제거하고 5단계 열처리 오븐기를 사용해 단시간에 빠르게 구워내 생선 고유의 맛과 영양과 촉촉함을 살렸다.

/김민지 기자

롯데푸드 ‘박정우효과’ 광고 300만뷰

롯데푸드는 의성군청 소속 씨름선수 박정우를 내세운 ‘의성마늘 만두’ 유튜브 광고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롯데푸드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이번 의성마늘 만두 광고 영상은 최근 TV에서 방영하는 씨름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정우 선수가 큰 활약을 보이면서 업로드 약 2개월 만에 300만 건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김민지 기자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포니이펙트 ‘프리미 프로텍트 선 커버’, 베네피트 ‘보-잉 케이크크리스 컨실러’, 아리따움 ‘매트포몰라 아이브로우 펜슬’, 바이레도 ‘톨립마니아’

종일 착용하는 마스크엔 가벼운 메이크업

톤업·자외선 차단 크림으로 가볍게

지금 대한민국은 마스크의 나라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을 나서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일과를 보낸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메이크업을 사수하는 방법이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마스크에 눌러 접촉 부위의 파운데이션이 지워지고, 마스크 속과 마스크 틈새로 새어 나오는 습기, 열기로 인해 평소보다 빨리 화장이 무너지고 홍조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픽서를 사용해 메이크업을 고정하거나 내부 공간이 넓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베이스는 자연스러운 톤 보정

파운데이션, 쿠션을 쓰지 않더라도 베이스 메이크업은 필요하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과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선크림이라도 바르는 것이 좋다.

포니이펙트의 ‘프리미 프로텍트 선

커버’는 원래의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주고 화사하게 톤을 밝혀 주면서 적당한 커버력을 가진 선크림이다. 모이스처라이저와 같은 촉촉한 제형으로 발림성이 좋다.

◆뾰족한 컨실러로 눈에 띄는 트러블만 살짝 가리기

베네피트의 ‘보-잉 케이크크리스 컨실러’는 리미하고 가벼운 텍스처로 고르게 밀착되며, 소량만으로도 피부 결점을 한번에 커버해준다.

◆뜨거운 인상 위해 눈썹 선명하게

피부톤이 내추럴하면 인상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눈썹은 선명하게 그린다. 눈썹 앞머리보다 꼬리 쪽이 짙은 편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리따움의 ‘매트포몰라 아이브로우 펜슬’은 민낯에도 부드럽게 발색 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연의 눈썹 결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눈썹 사이 빈틈을 채워준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동아오츠카 과즙 11% 함유 ‘데미소다 청포도’

동아오츠카는 청포도 과즙 11%를 담은 저탄산 과즙음료 ‘데미소다 청포도’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출시를 기념해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임직원 1000 명을 대상으로 데미소다 청포도 샘플링 이벤트도 가졌다.

동아오츠카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청포도 에이

드 음료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탄산과 청포도 과즙을 더해 청량감과 과일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저탄산 과즙음료를 선보였다.

데미소다는 지난 2017년 데미소다 자몽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맛을 선보임으로써 사과, 오렌지, 레몬, 복숭아, 자몽, 청포도 등 총 6가지 맛의 라인업으로 확대됐다.

/김민지 기자